

지하철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아주 오래전 기억이다. 부산 집 근처로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요금 구간별로 다르다고 했다. 직접 표를 끊기까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1구간에 얼마, 2구간에 얼마라고 하는데 구간과 정거장의 개념조차 없었으니, 택시와 같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한 정거장 지나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렸다. 그런데 막상 지하철을 타러 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집 근처 역에서부터 약 10개의 정거장까지가 1구간이었고 그다음 역부터 종점까지가 2구간이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요금에 빠르고 특히, 약속 시간에 맞추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하철은 정말로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다.

필자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의 지하철은 한국보다 열 배는 복잡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여러 의미로 그 말은 맞았다. 한국의 지하철 회사는 도시철도공사 한 곳인

데 동경에는 여러 개의 지하철 회사가 있었고 각각 다른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환승도 불편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요금 시스템도 있었다. 필자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단연 지하철이었다. 특히 동경은 지하철노선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어 대다수 사람들이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일본 지하철 회사들은 통근과 통학을 위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정기권의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도 높아진다. 정기권은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해서 구매하는데 지정된 기간에 그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 이 정기권은 매우 감사한 존재이다. 우선 집 근처 역에서부터 학교 근처 역까지 통학정기권을 끊으면 당연히 매일 티켓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집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교통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으므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간을 벗어

나 더 먼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기권의 마지막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요금으로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역시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회사 복지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중 하나도 교통비 지급을 꼽을 수 있다. 한국 회사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곳이 많아 교통비 지급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닌데 교통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한국 회사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교통비를 회사 형편에 맞게 정액제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교통비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직원이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살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직원은 적은 교통비를 받고 회사에서 먼 곳에 사는 직원은 더 많은 교통비를 받게 된다. 심지어 신칸센을 타고 타지방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도 정기권 금액으로 교통비를 수령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iM뱅크, 아쉬운 새출발



기지 수집
안승진
(금융부)

‘지방소멸 및 수도권 인구 과밀’ 정지권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과제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과반에 접어들었고,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목적이 일자리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지방이 쇠퇴하면서 거점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 역할을 도맡아온 지방은행도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이익은 이미 일부 지방은행의 영업 이익 규모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인터넷은행의 직원당 생산성은 지방은행

의 2.3배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역할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돌파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시중은행 진출에 따른 ‘iM뱅크’로의 전환이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는 한편 영업 구역 제한, 시중은행보다 비싼 조달 비용 등 지방은행의 성장을 막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 나선 것.

그러나 이달 초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iM뱅크의 초기 행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방일 뿐이었다.

금리 경쟁력이 높은 특판 상품들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편성돼 접포 이용 고객의 접근이 어려웠고, 고객유치를 위해

사명 변경에 발맞춰 선보인 ‘연 20% 초단기 적금’은 인터넷은행들이 지난해 유행시켰던 ‘초단기 적금’의 재현에 불과했다. 고객의 시선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는 높지만 기간과 액수제한이 있어서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수십 년간 축적된 지방은행의 노하우를 활용해 전국 소상공인, 중·저신용자를 공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 출범 직후 행보에서는 그 포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출범 초 영업망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이 ‘iM뱅크’에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눈에 띄는 혁신과 신선함이 부족하던 지적을 어떻게 받아 들일 지 궁금해진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11일 (음 5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남의 티끌보다는 내 잘못도 생각. 48년생 역경에 처해도 위축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온다. 60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 72년생 피나 웅졸한 고집 피우지 않도록. 84년생 새는 날기 시작하면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 소** 37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49년생 친질이 오히려 부질없는 참견 될 수 있다. 61년생 배우자에게 믿음으로 대하자. 73년생 원활한 인간관계가 인생사 사는 비법. 85년생 오랫동안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했다.
- 호랑이** 38년생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 협동. 50년생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니 보답이 온다. 62년생 정신없을 때 상사나 나를 돕는다. 74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해결책이 있다. 86년생 인생사 살다 보면 운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 토끼** 39년생 좁은 길은 갈 때는 한발 물러서서 양보. 51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63년생 사냥함도 여유를 가져야 미움 안 산다. 75년생 운전하며 옆 차와 다투지 마라. 87년생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늘상 공존.
- 염** 4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2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쳐진다. 64년생 조심스러우면 천지의 신들도 도움을 주게 된다. 76년생 두번 오지 않을 인생. 88년생 재산과 임무를 맡기려니 시련을 극복하려는 형체가 없다.
- 뱀** 41년생 호랑이가 이빨 빠지면 개에게도 복종하게 되니 재산 잘 지키도록. 53년생 곁양 지덕이 있으면 주변부터 화평하다. 65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없다. 77년생 인생은 각자 가는 것. 89년생 하늘의 뜻은 예측하기 어렵다.
- 말** 42년생 금전 문제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5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66년생 산행 가서 새로운 이성을 주의. 78년생 산다는 것은 남보다도 우선 자신과 싸움이기도 하다. 90년생 순조로운 하루이며 주사의 자산증식 소식이다.
- 양** 43년생 소금을 넣어도 너무 짜지 않는 모습. 55년생 길은 가까운 데 있으니 조직에서 신의를 지켜라. 67년생 게으름 무책임은 내가 물리쳐야 할 요소이다. 79년생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보라. 91년생 꿀을 넣어도 너무 달지 않아야 하고.
- 원숭이** 44년생 반려견이 고마운 날. 56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68년생 결혼하지 않을 이성과 가까이 하다 보면 미래의 자식 복을 상실하게 된다. 80년생 취미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92년생 삼재(三災)에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라 했다.
- 닭** 45년생 부동산 매수가 순조롭다. 57년생 부족한 상사를 비난하지 않도록. 69년생 할 일에 대해 순서를 매겨보라. 81년생 무슨 일든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살펴보라. 93년생 가지고 있는 돈에 너무 인색하면 중부진나 말년에 빈털터리로.
- 개** 46년생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8년생 비가 든 구름을 걸고 봐서 알겠는가. 70년생 내가 상대에게 중상모략이 될 수 있으니 말을 가려서. 82년생 회사에서 개인 전화는 사절해야. 94년생 식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며 하심을 하자.
- 돼지** 47년생 태어날 때부터 이상적인 가정은 없으니 합낼 것. 59년생 자녀가 한 발짝씩 원하는 수준에 오른다. 71년생 질투를 없애고 공평심을 찾으면 기회가 온다. 83년생 현재의 경제는 극복된다. 95년생 재물의 기초는 스스로 닦고 모아야 할 터.

김상회의四季

경국지색과 당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한 국가가 쇠퇴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는 경국지색이다.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정도의 아름다운 미인. 하나라 때의 말희(末喜), 주나라를 망가지게 했다는 포사, 은나라 주왕(紂王)의 비(妃)였던 달기, 당나라 현종 때의 양귀비(楊貴妃)를 떠올릴 것이다. 그중 포사가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40년 동안 잉태되어 있었다가 태어났다는 출생 자체가 기이하고 죽음 또한 베일에 싸여있다. 웃지 않는 미녀로 소문난 그녀를 웃게 만들기 위해 유왕(幽王)은 애가 댔다.

귀하다귀한 비단을 실수로 찢은 것을 보고 포사가 깔깔대고 웃자 수시로 비단을 찢기도 했다. 시간이 가자 포사는 비단 찢는 소리도 지겨워해서 유왕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을까 하던 차에 그 유명한 ‘봉화’ 시리즈를 탄생시킨다. 도망하던 유왕과 포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태자는 적군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고 포사는 포로로 잡혔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래서 구미호의 화신으로서 죽지 않고 여우로 변해 도망했다는 얘기까지 있다. 여우의 이미지는 고대로부터 아름답고 섬뜩하고 꼬리가 아홉 개 달린 낭랑 특유의 단골 소재인 것도 포사가 효시인 것 같다.

중국의 고대 3국가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사라진 이유를 왕들이 총애하던 여자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니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리라.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기보다는 당파싸움과 같은 권력자들의 명분을 내세운 기득권 추구가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3 | | | 9 | 4 | | | | 7 |
| | | | | | | | 6 | 5 |
| | | | | 8 | 2 | | | |
| | 9 | | 2 | | 7 | | | 1 |
| | 2 | | | | | 9 | | |
| 1 | 3 | | 7 | | | 5 | | |
| | | 7 | 6 | | | | | |
| 9 | 2 | | | | | | | |
| 5 | | | 7 | 1 | | | | 4 |

| | | | | | | | | |
|---|---|---|---|--|---|---|---|---|
| 9 | 5 | 8 | | | | | | 4 |
| | 3 | | | | | | 8 | |
| | | 1 | 7 | | | | | 5 |
| 4 | | | | | 3 | 9 | | |
| | 5 | | | | | | | 2 |
| | | 8 | 4 | | | | | 1 |
| 5 | | | | | 2 | 4 | | |
| | | 6 | | | | | | 1 |
| | 8 | | | | 7 | 3 | | 9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마음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7 | 2 | 8 | 6 | 1 | 7 | 9 | 8 | 9 |
| 8 | 7 | 9 | 9 | 7 | 8 | 1 | 2 | 6 |
| 6 | 9 | 1 | 2 | 8 | 9 | 7 | 8 | 7 |
| 2 | 8 | 9 | 9 | 7 | 6 | 8 | 7 | 1 |
| 9 | 8 | 6 | 1 | 9 | 7 | 2 | 8 | |
| 1 | 7 | 7 | 2 | 8 | 8 | 6 | 9 | 9 |
| 8 | 6 | 7 | 8 | 9 | 9 | 7 | 1 | 1 |
| 9 | 9 | 7 | 7 | 8 | 1 | 8 | 6 | 2 |
| 2 | 1 | 8 | 7 | 6 | 2 | 9 | 9 | 8 |

| | | | | | | | | |
|---|---|---|---|---|---|---|---|---|
| 6 | 9 | 8 | 7 | 7 | 9 | 2 | 8 | 1 |
| 2 | 1 | 9 | 6 | 8 | 8 | 9 | 7 | 7 |
| 7 | 8 | 7 | 2 | 1 | 9 | 8 | 6 | 9 |
| 1 | 8 | 7 | 9 | 6 | 7 | 8 | 2 | 9 |
| 7 | 9 | 8 | 7 | 1 | 6 | 9 | 8 | 8 |
| 8 | 9 | 6 | 8 | 9 | 2 | 7 | 1 | 7 |
| 9 | 6 | 7 | 8 | 7 | 1 | 9 | 8 | |
| 9 | 2 | 8 | 1 | 9 | 6 | 7 | 8 | 2 |
| 8 | 7 | 1 | 9 | 2 | 8 | 5 | 7 | 6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48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52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